



12일 광주를 방문한 김항식 국무총리가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엑스포·호남고속철·애플 문화전당 광주·전남 부흥 돕겠다

김항식 총리 광주 특강

김항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 각계 대표들에게 취임 이후 그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속내를 털어냈다. 공식적인 주제는 '선진 일류 국가도약을 위한 국정운영 주요안점'이었지만 김 총리는 호남 출신 첫 총리로서의 부담감 속에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국내·외 복잡한 경제, 지역·이념·세대·종교 간 갈등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했다.

또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원칙을 갖고 '알게 모르게 챙길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 총리는 "사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총리가 돼 불안하지만 총리라는 직책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7개월을 요약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것이 곧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도 적합한 것이라며 자신감도 피력했다. 김 총리는 "사실 구제역, 천안함 사태, 저축은행 비리 등도 규정과 기준, 원칙을 안 지켜 비롯된 문제이며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은 사실 법과 원칙, 규정을 어기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총리로 재임하면서 5개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5개 원칙은 엄정한 법 집행, 기회 균등, 편법 배제, 약자 배려, 건전한 시장경제 확립 등으로, 그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층의 관심 및 솔선수범, 그리고 범국민적인 운동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 강대국 사이에서의 군사 및 외교, 높은 대외 의존도 등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국내에서는 지역 간 갈등 등이 그 어느 시기보다 분출하고 있으며 문제도 산적해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지난해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흑자 400억 달러, G20 회의 성공 개최, 경제성장률 6.1% 등 경제적인 성과를 올린 점은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물가 문제와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분열, 고용 없는 성장 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사회적 정서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또 국정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EU 및 한-미 FTA, 후쿠시마 원전 사태, 물가 및 실업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지역민에게 설명하는 데 치중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역현안에 압력을 느끼고 있으나 개인적인 뜻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 나라 장래는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원칙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R&D 특구, 5+2 광역경제권사업 등 지역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재편

하는 데 노력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지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뒤 2012년 열리는 여수엑스포,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호남고속철도 완공 등 광주·전남 현안사업을 돕겠다고 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김 총리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교시절 은사를 이날 행사장에 초청하기도 했다.

한편 환영사에 나선 강 시장은 "김 총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믿음을 높여주고 있으며 어려운 정치적 지형 속에서 기대 이상 잘 해주시고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100m 경주에서 이제 10m 남았는데 이를 총리가 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도 "국가가 평화롭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의로운 지역인 광주전남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인식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고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특강을 마치고 이날 밤 상경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16일 DJ센터서 개막

24개 도시·기구 참여...광주인권도시 첫걸음

광주와 5·18 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24개 해외 도시·기구·단체 대표 29명과 국내인사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적 인권 실현'을 주제로 3개 전체회의와 4개 분과회의가 진행된다.

주요 참석자는 베르너 페트 베를린 자유대학 총장, 파르티샤 게틀링 뉴욕시 인권위원장, 라렌드 자민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의장, 마이무나 샤프프 말레이시아 페낭 시장, 로버트 캐스틴 국제인권교육민중연맹 사무총장, 한상진 청와대 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이다.

개막식은 강운태 광주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회보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호마윤 알리자데 유엔인권 최고대표특사의 축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가 낭독된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가 끝나면 17일 해외도시 대표와 인권기구단체 대표가 '광주인권도시선언'을 발표한다.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는 광주시가 유엔 인권도시 지정을 위해 여는 첫 행사로 향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선 시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는 광주가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고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 동서남 해저에 박람회 기념 수증비

여수 백도·독도·연평도·마라도에 건립기로

한반도를 에워싼 동·서·남 해저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념하는 수증비(사진)가 세워진다.

여수시스킨스쿠버연합회는 12일 로 개막 D-365일을 맞은 여수박람회 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뜻에서 오는 14~15일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저에 여수박람회 기념 수증비를 건립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m 깊이 물속 암반에 세워질 수증비는 가로 60cm, 세로 45cm, 두께 10cm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의 대리석에 여수박람회 및 여수시 상징 엠블

렘과 함께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D-365', '여수시,여수스킨스쿠버연합회' 등의 글씨를 새겼다.

앞으로도 D-300일(7월 17일), D-200일(10월 25일), D-100일(2월 2일), D-Day(5월 12일) 등 4차례의 특정에 맞춰 동쪽 독도, 서쪽 연평도, 남쪽 마라도 등 4곳 해저에 이 수증비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스쿠버연합회 이민식 회장은 "여수박람회를 전국민에게 알리고,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여수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수



중비를 건립하게 됐다"며 "앞으로 상시 수증정화활동은 물론, 박람회 기간에 세계수증정화대회 및 민수영대회 등 국제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과학벨트는 광주에"

노벨상 수상자들 잇단 지지

노벨화학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전남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광주과학기술원 내 촉매연구센터를 운영 중인 게르하르트 에르를 독일 막스플랑크 프리츠 하버 연구소 명예교수는 12일 과학벨트 광주 유치 지지 서한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007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에르를 교수는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과정을 정기적으로 컨트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앨런 히거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토머스 스타이츠 예일대 교수도 서한문을 통해 과학벨트 광주 유치를 지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말이 씨 맺어요

풍요로운 내일, 더 가까이 만납니다

당신의 여유로운 생활, NH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광주첨단2단계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급공고

1.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공급예정가격(백만원)	대금납부	공급방법	입찰보증금
지원시설용지	2	1,517~4,003	1,107~3,038	2년분할	입찰	입찰할 금액의 5%이상
주차장	2	1,304~3,794	543~1,662	2년분할	입찰	입찰할 금액의 5%이상

* 필지별 세부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내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게시된 공급공고에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입주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지권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광주첨단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한 자

3.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장소
입주심사신청	2011.05.19(목) ~ 2011.05.20(금)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입주신청결과 통보	2011.05.23(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공정성립관리정보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입찰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2011.05.25(수) 09:00 ~ 2011.05.26(목) 1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입찰서 제출	2011.05.25(수) 09:00 ~ 2011.05.26(목) 16:3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개찰일	2011.05.26(목) 17:0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입주계약체결	2011.05.27(금) ~ 2011.05.30(월)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토지매매계약체결	2011.05.27(금) ~ 2011.05.31(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권사업단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추첨 및 입찰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4.신청예의금 납부 / 귀속 및 반환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신문공고내용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게재하였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매각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언에 따른 책임은 매수자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문의 :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권사업단(062-650-0431~2)
2011. 05. 1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